“마음 촛불 밝히고 살아가겠습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교사직무연수 회향

1월 7~8일 전국 교사 대상
주인공 관법 접목 교육 논의
혜연스님 “교육현장 도움되길”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1월 13일 교사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회향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의 교사 직무 연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1월 13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가르침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마음가짐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진행한 교사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회향했다.

1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이번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에는 통영 인근 지역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석해 다양한 강의와 참여형 실습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마음교육’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번 교사 직무 연수는 교사들이 마음교육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사 직무 연수 강의는 김민선 서종초 교사의 ‘고정관념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과 혜서·혜환 스님의 ‘마음을 여는 대화’ ‘괜찮지 않아도 돼!’, ‘촛불명상’ △한마음 출판부 혜교 스님이 ‘주인공으로 살아요’ △최명희 경북대 강사의 ‘나로부터 시작하는세상’ △박옥남 경남 한마음인성교육연구회 연구원의 ‘마음의 원리’ △차희원 통영중 교사의 ‘무지의 자각’ △박훈 생사학아카데미 연구원의 ‘아름다운 고백(Go Back)’등도 이뤄졌다.

이번 교사 직무 연수에서는 현대 교육 환경에서 교사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학생 및 동료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됐다. 참석한 교사들은 자신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교사는 “내면으로의 자기 성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지켜보는 시간이었다”며 “일상에서도 마음의 촛불을 켜고 밝혀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교사가 되려고 애쓰면서 힘들었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마음의 중심을 잘 세워야 주위에도,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실패나 두려움도 모두 주인공(主人空)에 맡기고 살아가면 된다는 가르침이 큰 위안이 되고 개인적인 고민도 많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이번 연수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교사 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 백양사, 만암 대종사 68주기 다례재

1월 14일, 경내 대웅전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가 근대 중창조인 만암당 종헌 대종사(1876~1957)의 열반 68주기를 추모하는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월 14일 경내 대웅선에서 ‘만암당 종헌 대종사 제68주기 추모다례재’를 열고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가고자 다짐했다.

다례재에는 조계종 전 원로의원 암도 스님, 현 원로의원 성오 스님을 비롯한 진공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제18교구 말사 주지스님과 문도스님 등이 참석했다.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옛날 만암 대종사 다례재 때 문중 어른스님들이 경내에 머물며 다례를 모셨던 기억이 난다”며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준 대덕스님들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공주시사암·불자聯 2025년 신년법회

1월 10일 마곡사복지관 3층서



공주시불교계가 한 자리에 모여 2025년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공주시사암연합회(회장 천산 스님)와 공주시불자연합회(회장 이종직)는 1월 10일 공주 마곡사복지관 3층에서 ‘불기2569년 을사년 공주시사암연합회·불자연합회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법어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행복을 일궈야 한다”며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이타’를 행하면서 새해에는 복을 많이 짓자”고 설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태원 스님 “새해 맞아 따뜻한 세상 만들자”

‘삼각산 도선사 어울림 한마당’
1월 14일 강북문화예술회관서
지역 인사 등 350여 대중 참여



도선사는 1월 14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에서 ‘삼각산 도선사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삼각산 도선사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사내 사부대중과 지역사회 이웃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1월 14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에서 ‘삼각산 도선사 어울림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년 하례식을 겸해 진행됐으며, 도선사 사부대중과 지역사회 이웃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화합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총무국장 원각 스님, 김학규 직할교구신도회장(도선사 신도회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김영일 도선사 정책자문위원, 김명희 강북구 구의회 의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 국회의원, 박진웅 강북구(을) 당협위원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조윤섭 강북구의회 부의장 등 35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신년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모두 도선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다.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 확장되길 발원한다”며 “도선사는 언제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행복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도선사 사부대중은 새로운 한 해에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학규 직할교구신도회장은 “지난해 겪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대한다”며 “주지 태원 스님을 비롯해 국장스님들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도선사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말했다.

이어 한 해 동안 도선사를 위해 헌신한 신도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우수봉사자 포상식’이 진행됐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최화자·홍남조(관음회) △이행자·안치옥(문수회) △박정자(보현회) △하명애·임길순(지장회) △홍성호(염불봉사단) △김순자(연등공방) △최인정(다도반)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전달하며 신도들을 격려했다.

김민재 기자

익산 이리불교대학 제34기 졸업식

21명 졸업생 배출



익산지역의 유일한 신도전문교육기관인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스님)이 제34기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리불교대학은 1월 12일 익산 관음사 3층 법당에서 제34기 졸업식과 조계종 신도품계 품수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21명의 불자들이 1년 과정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과 ‘부동’ 신도품계를 수지했다.

학장 덕림 스님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년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다”며 “불교대학을 통해 교리를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익산불교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금강 관음사, 자비의쌀 나눔

명절 前 백미 500kg 전달



금강 관음사(주지 정수 스님)는 1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의쌀 500kg(10kg, 50포대)를 익산시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사진〉

금강 관음사 주지 정수 스님은 “금강 관음사는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이웃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백미를 전달하고 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나눔의 온정이 전달돼 소외이웃이 따듯한 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탁된 백미는 익산시 동산동의 홀몸 어르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이웃 외 지역 취약계층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사찰 브랜드 천연화장품 출시

‘홍매화 스킨케어 세트’ 공개
프랑스와즈 브랜드 협력 개발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1월 12일 ‘화엄사 홍매화 프리미엄 유기농 스킨케어 4종 세트’〈사진〉 출시를 밝혔다.

화엄사 홍보기획위원회는 오는 3월 예정된 ‘제5회 구례 화엄사 화엄매(홍매화·들매화) 프로 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에 앞서 대한민국 천연화장품 브랜드 프랑스와즈와 협력한 화장품 세트를 공개했다.

손병규 프랑스와즈 대표는 “프랑스와즈 천연화장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화엄사 홍매화 유기농 천연화장품은 300년 역사를 가진 자연을 피부에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을 거쳐 탄생했다”면서 “유기농 함량을 높인 고품질 홍매화 화장품은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화엄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담은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길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성기홍 화엄가 홍보기획위원장은 “이번에 출시된 화장품은 화엄사 대표 브랜드 ‘홍매화’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된 유기농 천연 성분을 강조한 화장품”이라며 “이것을 시작으로 화엄사의 상징인 홍매화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뷰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4종으로 구성된 화장품 세트는 딥클렌징 오일, 유기농 미스트, 스킨, 에센스로 구성돼 있다.

한편, 화엄사는 비건버거, 녹차 김, 자일리톨 사탕, 냉동김밥 등을 출시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유기농 화장품이 그 대열에 동참해 화엄사 브랜드 파워를 한층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역학교에 장학금

1월 12일 천곡중 · 호계고에 각 300만원 전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이 지역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1월 12일 울산지원 대법당에서 정기법회 및 한마음선원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과 천곡중, 호계고와 체결된 장학금 전달 MOU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천주현 신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박라이 울산천곡중 행정실장과 한현숙 호계고 교장에게 각각 3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날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전달한 장학금은 천곡중과 호계고 학교 자체 선발기준에 의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 살아생전에 지역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실천해 오고 있다”며 “천곡중학교와 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여러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라이 천곡중 행정실장은 “불자님들의 소중한 마음을 저희 천곡중학교에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서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현숙 호계고등학교 교장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절임에도 잊지 않고 해마다 우리 호계고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반야사, 자비의 쌀 150포 전달

1월 15일 마산 회원구청에



창원 반야사(주지 혜명 스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창원 회원구청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사진〉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과 신도회 임원들은 1월 15일 창원시 회원구청을 방문해 회원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자비의 쌀 150포(10kg 150포, 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도들과 함께 자비의 쌀을 기탁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 반야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